

목포시, 친환경선박산업 육성 속도낸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과 전기추진기술 개발 업무협약 인프라 공동 구축·활용 등 협력

목포시가 국책연구소와 전기추진기술 개발에 나서는 등 친환경선박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전남도, 한국전기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과 함께 '친환경선박 전기추진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외의 최고 전기 및 선박 관련 국책연구소와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친환경선박산업 육성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친환경 전기추진기술 인프라 공동 구축 및 활용 ▲친환경 전기추진기술 중장기 로드맵 공동 수립 ▲산업계(조선, 해운, 기자재) 필요 핵심기술 공동 개발 및 상용화 ▲해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 공동 참여 ·대응 ▲국·과 R&D(연구개발) 공동 참여 및 상호



김중식 목포시장(맨 왼쪽)과 한국전기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관계자들이 지난 29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기술 지원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목포시는 앞서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 공급시스템 개발(450억원),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415억원) 등 친환경선박산업을 미래 성장 핵심 동력으로 육성할 사업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남해를 세계적 친환경선박 메카로 발돋움시켜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

다는 복안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남해에 조성되는 '친환경선박 클러스터'가 더욱 내실있고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목포 산업의 새로운 든든한 축이자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친환경선박산업 육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해남군, 맑은 물 공급 인프라 확충 박차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착공

해남군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해남군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9개 사업에 국비 674억원 등 총사업비 1200억원을 투입했다.

해남정수장을 현대식으로 개량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실시설계가 끝난 지난달 착공됐다.

국비 등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산산면 송정리에 위치한 해남정수장을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최신식 정수장으로 전면 개량하게 된다.

2024년 해남정수장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해남읍 일부를 비롯한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일원 5천915세대에 하루 4000t 규모의 최고 수질의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남읍을 비롯한 송지면, 황산면, 문내면 일원 노후상수관로 105km를 교체하고 블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총 331억원 규모의 해남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해남정수장 조감도.

면 단위 상수도 보급사업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통해 삼산, 화산지구에 총사업비 241억원을 투입해 배수관로(길이 63km)를 매설 중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정수장 현대화사업 등 상수도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전국에서 가장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군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시-전남도교육청, '옛 청호중 활용' 협약

학교가 이전된 뒤 수년간 방치된 옛 목포청호중 학교의 활용방안이 모색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30일 목포시와 옛 청호중학교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청호중은 지난 2018년 3월 1일 용해지구로 이전한 이후 옛 건물은 현재까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다. 시는 그 동안 전남도교육청과 활용방안을 모색해왔다.

목포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옛 청호중은 전라남도교육청 소유재산으로 목포시가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업무협약으로 무상사용이 가능해졌다.

협약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학교부지 일부를 목

포시에 무상 대부하는 한편 사업을 위한 공청회 개최, 시민의견 수렴, 재정투자 등을 실시한다.

목포시는 재정지원과 인·허가 및 민원 등 행정지원, 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 등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구상 중인 활용방안은 교육공동체 소통공간인 커뮤니티센터, 시민의 문화예술공간과 학교예술포럼 지원을 위한 창의문화예술센터 등이다.

또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인 개방형 북카페와 어르신 자료실, 도심 속 공원과 숲 등 문화시설을 비롯한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오는 2025년 새 단장을 목표로 재정확보를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신안군, 흑산도에 야생조류 서식지 확대 조성...“철새와 공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

신안군이 흑산도에 야생조류 서식지를 확대 조성한다.

우리나라 최서남단에 위치한 흑산도는 지리적으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 경로 중 한반도를 통과하는 철새들의 주요 이동 길목으로 봄, 가을철 다양한 철새가 관찰된다.

국내에 기록된 560여 종 중 400여 종이 흑산도 권역에서 관찰될 정도다.

군은 흑산면 일대 도서지역에 철새와 서식지를 보전하고 마을 활성화·소득 증대를 위한 야생조류 서식지 조성사업인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2017년부터 매년 추진 중인 이 사업은 봄, 가을



철새 먹이 농작물 재배지.

도서 지역을 찾는 철새에게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고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철새와 서식지 보전, 생물다양성 증진을 통한 마을 활성

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마을의 휴경지에 조(서숙)와 수수를 재배, 수확물의 50%를 가을철 흑산권역을 통과하는 철새에게 먹이와 휴식처로 제공한다.

가을철에 50%를 수확해 놓았다가 이듬해 봄, 철새 이동 시기에 부족한 먹이를 추가로 공급한다.

야생조류 서식지 확대 조성 사업은 철새와 주민에게 서로 상생의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흑산 철새박물관에 4월 5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흑산면 주민으로 경작 가능한 토지를 소유했거나, 소유주에게 사용 승낙을 얻은 주민은 1가구당 1필지, 약 1000㎡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암도기박물관 내일부터 '불의 흔적' 도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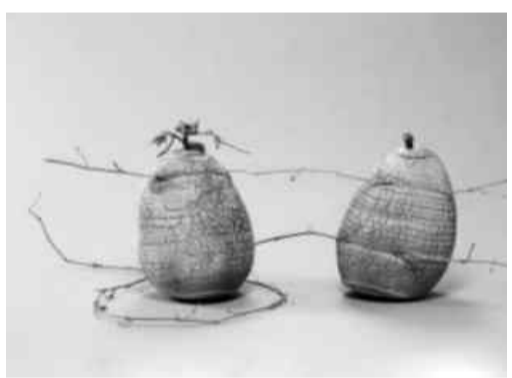
영암도기박물관이 '무유도기, 불의 흔적'을 주제로 한 특별전을 연다.

다음달 1일 시작될 특별전에는 전통 장작가마로 무유도기를 제작하는 김대웅, 양승호, 임병한, 임영주, 전창현, 최재욱, 태성룡 작가가 참여한다.

이들 작가는 전통도기 소성 방법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우연적 효과가 주는 조형성에 주목해 오랜 시간 무유도기 작업을 이어왔다.

무유도기는 도자기를 만들 때 유약을 사용하지 않고 굽는 도자기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무유도기 작품은 고운의



영암도기박물관 특별전 전시작품.

장작가마에서 장작을 태울 때 날리는 재가 도기에 달라 유리질을 형성해 자연유의 신비함을 보여준다.

무유도기는 불과 나무, 흙 등 가장 기본적인 자연의 구성 요소가 낳은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영암도기는 1200년의 역사를 가진 국내 최초의 고화도 시유도기로서 무유도기의 제작과정에 착안, 인공적인 재유약을 입혀 구워냄으로써 국내의 오랜 무유도기 전통에 혁신을 일으킨 도기이다.

영암도기의 제작 기술은 청자, 분청, 백자로 이어지는 자기문화의 기술적인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국내 전통도자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영광군 AI·스마트시스템 노인 돌봄 구축

미스터마인드와 업무협약

영광군이 인공지능(AI)과 스마트시스템을 활용해 빈틈없는 노인돌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영광군은 지난 28일 미스터마인드(주)와 '영광형 인공지능 스마트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협약은 '취약계층 정서적 안정 도모',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활용 비대면 돌봄서비스 제공', '치매·우울증 등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돌봄시스템' 필요성 때문에 이뤄졌다.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AI) 돌봄 인형 보급, 기술개발, 정책 자문·운영 등 상호 협력하는 것이 골자다. 영광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특화하고, 인적 네트워크 돌봄의 한계를 극복한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기존 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효율성이 뛰어난 경우 시스템을 전격 구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기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기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